



## 北漢江 배경한 삶의 이야기 自傳的 소설 「流民」세재권

— 소설가 韓水山씨

지금 집필중

산문시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감동을 더하는 소설가 韓水山씨(40)는 요즘 「流民」의 3권째 책을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流民」은 이제까지 별로 소설의 배경이 되지 않았던 강원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한동안 「신동아」에 연재되기도 했고, 1권과 2권은 이미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流民」은 북한강을 배경으로 3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3대를 거치는 가운데 인물들이 확대되면서 강을 따라 살아가는 갖가지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북한강은 양수리에서 한강으로 합쳐들기까지 김화·화천·춘천·양구 등 강원도 일대를 휘감아돈다. 따라서 이 강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강원도의 풋풋한 냄새가 그대로 살아 흐르고 있다. 韓水山씨는 그 자신이 춘천태생인데다 본적이 麟蹄여서 골고르고 물맑은 강원도의 풍토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이 소설은 自傳的인 요소가 강한 이야기입니다. 고모님을 비롯, 친척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실명의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內麟川이라는 작은 지류에서 시작하여 소양강댐이 막아지는 데까지 이르는 「유민」의 이야기는 바로 어제의 우리들의 삶을 표현해 낸다고. 등장인물이 60명이나 되는 복잡한 삶의 이야기는 6·25, 4·19 등 급격한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가는 사람들의 초상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韓水山씨는 ‘시간’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인 관심도 깊이 스며있다.

“예컨대 여자들의 쪽머리가 퍼머머리가 되고 물레방아가 기계방아로 변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단 걸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밀한 심리적 갈등은 의식세계와 가치관마저도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농사짓는 마을과 목수일을 하는 두 마을의 남녀가 결혼을 하는 장면(「유민」의 일부분)도 강을 넘어서 농경문화와 쟁이문화가 만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韓水山씨는 세재권의 출간을 위해 원고지 2천여매와 씨름을 했다. 「유민」은 앞으로도 그 흐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 대단원의 막은 아홉권 정도에 가거나 내려질 것 같다고. 그의 이 작품에 대한 예정은 각별해서, 스스로 이 소설이 작가적 변신의 한 분수령이 된다고 말한다.

“「4월의 끝」으로 작가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초」와 「회선」으로 두번의 변신을 했다고 봅니다. 「유민」은 작가로서의 나의 면모를 네번째 일신하는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 2권에서 보여준 독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소설의 폭이 크고 넓다는 이야기다. ‘이런 작품을 쓰는 韓水山의 나이는 쉰은 넘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듣는다. 그는 「유민」을 통해 강원도의 흥과 바람을 그대로 그려냄으로써, 그가 자라고 그가 사랑하는 땅에 대한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경순 기자]



## 이집트 전통건축의 脈 되살린 「구르나 마을의 이야기」

— 건축가 鄭奇溶씨

지금 번역중

“음악은 듣기 싫으면 끄면 되고, 전람회는 보기 싫으면 안가면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누구도 안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대단한 공공성을 지닙니다.”

건축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鄭奇溶씨(43)는 요즘 「구르나(Gourna)마을의 이야기」(假題) 번역을 마무리 중이다.

原題는 「Construire avec le peuple(민중과 함께 건설을)」(신드밋社). 현존 제3세계 건축가를 대표하는 이집트인 하산 화티(Hassan Fathy)의 力作으로, 건축의 본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 하산 화티는 이 책의 내용이 되는 구르나마을을 건설함으로써 전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된 건축가.

구르나마을은 피라미트 도굴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집트 북부고원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다. 콘크리트가 건축자재로 사용되면서부터 이집트의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건축환경이 소멸되는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하산 화티는, 이집트정부가 값싸고 튼튼하며 빨리 짓는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를 사용, 구르나마을을 개조하려 하자 이의 구명에 나선 것. 그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건축자재가 흙벽돌이며, 이를 사용하여 틀 없는穹窿구조를 만들었던 오묘한 전통기술을 찾아내고자 했다.

결국 구르나에는 1950년 콘크리트보다 싸고 빠르게, 전통의 맥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세워지게 된다. 이 책에는 천년을 내려오는 축조방법의 재현과 창조, 이를 위한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에서 맥이 끊어질뻔한 기술을 재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국민에게 훈련시키고 발전시켰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결정에 맞서 이긴 개인의 신념과 용기도 배울 만하지요.”

정기용씨는 이 책이 ‘우리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문화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건축도 그 모델을 서구사회에 두고 있어, 선진이라는 레테르 아래 우리 전통기술과 양식이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와 한다. 그래서 70년대 우리 농촌사회를 급변시킨 새마을운동의 졸속함을 아쉬워하고, 주변경관과는 상관없이 우뚝선 건물의 무책임성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고유의 건축재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건축가들에게도 이젠 시선을 돌려야 함을 일깨우는 책이라고.

“이 책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서구문화의 공격을 막아내고 주택문제를 극복해나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3년 동안 프랑스에서 건축수련을 쌓고 85년 귀국, 현재 여의도 쌍둥이빌딩(럭키 금성빌딩)을 탄생시킨 ‘창조’팀의 멤버인 정기용씨. 그는 무엇보다 전통의 맥을 잇는 건축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젊은 프랑스 건축가들의 새로운 건축이념도 국내에 소개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박경순 기자]